



인기가이드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

-
서울사이버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
영상제작전공
연기전공



K-콘텐츠의 내일을 주도할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을 열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홈페이지

ft.khu.ac.kr

전화번호

031-201-2672

교수진

이호인, 김학민, 김정호, 이영석, 이은혜

커리큘럼

연극 트랙 연극 문헌과 연기, 화술1, 뮤지컬보컬1, 뮤지컬 문헌과 연기, 화술2, 뮤지컬 보컬2, 극장 스태프와 무대미술, 극장스태프와 조명1, 극장스태프와 조명2, 극장스태프와 음향, 세계 연극사, 제작실습 1, 제작실습2, 노래해석과 연기, 즉흥과 연기, 연극연기1, 뮤지컬 워크숍, 연극연기2, 연극 워크숍, 연극연기3, 뮤지컬 연기연출론, 뮤지컬 융복합 창작실습, 연극창작실습, 카메라 연기와 촬영1, 카메라 연기와 촬영2, 오디션테크닉, 뉴미디어엔터테인먼트

영화 트랙 이미지와 사운드, 영화사, 비디오제작실습, 시나리오창작 기초, 영화촬영기초, 디지털 다큐멘터리 제작, 영화비평연습, 캡스톤 디자인1(연극영화학), 캡스톤 디자인2(연극영화학), 초급영화이론, 디지털편집실습, 고급 촬영과 조명, 사운드프로덕션, TV제작, 현대영화 연구, 단편 영화와 시나리오, 영화 쟁점과 콘텐츠 제작, 현대영화이론, 영상마케팅, 영화제작실습, 영화편집연구, 고급시나리오창작, TV-CM/뮤직비디오제작실습, 장면 구성과 연출, 현대한국영화연구

공통교과목 졸업논문, 독립심화학습1(연극영화학), 독립심화학습2(연극영화학), 교과교육론(연극영화), 교과교수법(연극영화),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연극영화학)

학부 소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는 1999년 설립 이래 무대와 스크린의 경계를 허무는 창조적 예술가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건학 이념 아래 인문학적 통찰과 예술적 실천력을 겸비한 전인적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학과의 핵심 목표다. 연극영화학과의 가장 큰 강점은 연극과 영화, 두 트랙의 유기적인 결합에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력 트랙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동시에, 트랙 간 장벽 없는 교차 수업을 통해 연출과 연기, 무대와 카메라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한다. '영화 트랙'은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창작부터 촬영, 조명, 사운드, 편집에 이르는 제작 전반을 실기 중심으로 교육한다. 60평 규모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녹음실, 5개의 개인 편집실 등 최첨단 인프라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하는 든든한 기반이다. 특히 최근 OTT와 유튜브 등 급변하는 영상 생태계에 발맞춰 라이브 스트리밍실을 개설하고, '이미지와 사운드', '디지털 다큐멘터리 제작' 등 현장 밀착형 수업을 강화했다. '연극 트랙'은 정통 연극과 뮤지컬은 물론 매체 연기까지 아우르며 배우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560석 규모의 A&D홀에서 펼쳐지는 정기 공연은 학생들이 예비 프로로서 관객과 호흡하는 실전 무대다. 또한, 경희대학교가 구축한 'X-Space'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VR 기반 뮤지컬 보컬 해부학 수업을 진행하는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 실험도 이어가고 있다.

AI와 뉴미디어의 부상에 발맞춘 학사 제도의 혁신 역시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26학년부터 연극영화학과에서는 급변하는 업계 트렌드를 학사에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마이크로 디그리'를 신설한다. 일본어·중국어학과와 연계한 '동북아시아영상산업', 디지털콘텐츠학과와 협력한 AI 관련 커리큘럼 등 타 학과와의 융합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산업의 핵심 역량을 선제적으로 갖추게 된다. 공유, 이주영, 조이현 등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들은 물론, <기생충>의 장영환 PD, 디즈니+ 시리즈 <비질란테>의 이민섭 작가 등 수많은 동문이 경희대학교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입시 전형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영화 연출 및 제작 분야 8명을 선발한다. 정시 나군의 수능 위주, 수능 100% 전형이다. 성적 산출 방법은 경희대학교 모집 요강을 따른다. 원서 접수는 유웨이 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에서 12월2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31일(수)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합격자는 2026년 1월16일(금)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입학 홈페이지(iphak.khu.ac.kr)를 참조하면 된다.



원장 김정호

AI사용 통해 창의력 극대화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과장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예고나 방송반 등에서 미리 경험을 쌓고 온 수시 입학생들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1~2학년 때는 경험해본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능숙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학습 능력이 좋고 수업을 성실히 따라오는 학생들은 졸업 시점이 되면 실력이 월등히 향상되어 있다. AI 툴에 시나리오의 텍스트 일부분을 넣어주면 몇초짜리 동영상도 똑딱하고 만들어주는 요즘, 결국 삶에서 길어내는 아이디어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만이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정시에서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

올해 졸업영화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제작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나 변화가 있었다.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스토리보드 작업 시 챗GPT나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AI를 활용하면 그림 실력이 부족해도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입력'이다. 자신이 상상한 장면을 AI가 정확히 출력해내도록 하려면 상황과 미장센을 텍스트로 아주 정교하게 묘사해야 한다. 이 과정 자체가 연출자에게는 훌륭한 훈련이 되고 있다.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가.

협력하는 리더십과 새로운 판을 짤 줄 아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며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영화는 철저한 협업의 산물이다. 감독은 스태프와 배우 각각의 욕망을 조율해 하나의 결과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있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없던 재미와 여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남이 만든 것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새로운 놀이터를 기획하고 소비시장을 창출해낼 줄 아는, 창의적인 인성을 가진 인재를 기다린다.



현장과의 긴밀한 연결로 미래 창작자를 육성한다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홈페이지 admission.kookmin.ac.kr
전화번호 02-910-4463
교수진 김현성, 김창주, 이현재

커리큘럼

영화사, 영화기술, 시나리오작법, 포토몽타주, 몽타주영화연구, 시네로망, 영화방송드라마대본창작, 디지털영상편집, 영화제작실습, 시네마테라피, 사운드디자인, 촬영조명시뮬레이션, 음악영화연구, 영화음악제작실습, 표현시네마테라피, 영화사운드연구, CG시각효과, 디지털색보정DI, 아트디렉팅과세트개발, 감독연구, 한국영화사, 영상콘텐츠제작창업실습, 바이럴영상제작실습, 작가주의영화연구, 장편영화드라마대본개발, 프로덕션디자인워크숍, 온라인영상콘텐츠기획개발, 영화드라마대본분석, 시네마토포그래피영화연구, 졸업영화기획제작, 영화분석과비평, 영화텍스트분석, 사제동행세미나, 장르영화연구, 문화예술교육개론, 영화교수학습방법,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재연구및지도법,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학부 소개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은 1988년 설립 이래 변화하는 영상 환경 속에서 창의적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왔다. 2014년 연극영화전공 분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이후, 영화·방송·OTT 시리즈·게임 영상·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등 확장되는 제작 생태계를 아우르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왔다. 기획과 제작, 이론과 비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융합형 커리큘럼은 발 빠른 대응의 핵심 기반이다. 영화전

공의 교육과정은 영상 제작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영화사, 영화분석과비평, 장르영화연구 등 이론과 비평 교육을 통해 영화언어의 구조와 미학,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커리큘럼은 학생들을 비평적 감각을 지닌 창작자로 성장시키는 토대를 다진다. OTT·유튜브·숏폼에 대응한 '온라인영상콘텐츠 초기개발' 수업, AI 관련한 교과목을 신설해 기술 융합형 제작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 실험을 통해 차세대 영상언어를 탐구한다.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연결은 국민대학교 영화전공의 가장 큰 강점이다. 2016년 설립한 '할(HAL) 엔터테인먼트'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영화학과에서 운영하는 학교 기업이다. 학생들은 상업영화·드라마·브랜드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무 역량을 쌓고, 상암 DMC 캠퍼스의 전문 제작사들과 협업한 프로젝트형 수업 및 인턴십 연계를 통해 수업과 현장의 자연스러운 접속을 실현한다. 예술 관에는 연출·촬영·편집·사운드·대사(대본, 시나리오) 등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용 시설과 전국 최고 수준의 촬영 스튜디오가 갖춰져 있으며, 소니 시네마 라인 카메라와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실제 제작 프로세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창작 경험을 제공한다.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인 '창조산업 인재양성' 과제를 수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인 'NC AI'와 협력해 생성형 AI 영상 제작 실습을 정규 과정으로 운영한 점도 눈에 띈다. 국민대학교 영화전공 졸업생들은 이미 현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2020)과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 걸>(2023)을 연출한 김용훈 감독, <남매의 여름밤>(2020)의 윤단비 감독 등은 작품성과 산업성을 겸비한 창작자로 활동 중이다. 교육과 산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지향. 국민대학교 영화전공은 오늘의 변화에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일의 영상언어를 설계하는 창작자를 길러내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입 시 전 형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의 정원은 총 13명으로, 이중 수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을 제외한 만큼 정시에서 선발한다. 따라서 정시 나군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최종 모집 인원은 12월28일(일)에 국민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시 나군은 수능 70%, 학생부 교과 30% 전형으로 성적 산출 방법은 국민대학교 모집 요강을 따른다. 원서 접수 사이트(www.uwayapply.com)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한 후 12월31일(수)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및 전형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합격자는 2026년 1월30일(금) 오후 5시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대학교 입학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를 참조.



영화전공 교수

AI 시대 영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묻다

이현재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교수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은 어떤 지원자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원자가 가진 고유한 감각과 사고 방식이다. 자신만의 언어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야기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오늘날 장비와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작업이 늘어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업 능력이 핵심이다. 할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전공 특성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학생이라면 더욱 큰 만족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 제작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은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전통적인 영화제작을 선호하는 학생도 많지만 새로운 영상 업계로 진출하려는 학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진 만큼 프로젝트션을 직접 창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생성형 AI가 영상산업 전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화전공은 기술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과제에 선정되어 NC AI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에 새로운 방향을 더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AI 시대의 창작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AI 시대를 설계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디자인학과

홈페이지 aidesign.kookmin.ac.kr
전화번호 02-910-5280
교수진 주다영, 허정현, 윤지선, 연명흠, 정진열

글 이유채 · 사진제공 국민대학교

커리큘럼

기초디자인, 디지털 드로잉, 제품과 시스템, 디자인 사고, 디자인 역사와 윤리, 다빈치 작업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디자인을 위한 파이썬, S-TEAM Class, 디자인과 컨텍스트, 정보디자인, IoT 디자인, AI와 스마트 스페이스, 인터랙션 디자인, 디자인 데이터분석, 비즈니스 디자인, AI와 아트, 상상 작업실,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을 위한 유니티, 디지털 스토리텔링, 모바일 프로토타이핑, AI와 서비스 디자인, 자연어 처리 실습, 생성디자인, 음악과 사운드 UX, 브레인 인터페이스, AI 디자인 포트폴리오, 로보틱스 이론과 실제, 디자인 창업,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생체인식 이론과 실제, 디자인 지적재산권, 캡스톤 디자인

학과 소개

국민대학교 시디자인학과는 국내 조형예술 교육을 선도해온 국민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022년에 신설한 전공이다. 단순히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디자이너를 넘어 인문·공학적 사고를 겸비한 융합형 창작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화하는 디자인 분야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향을 마련하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학과의 교육철학은 국민대학교가 꾸준히 강조해온 공동체 정신과 기업가정신, 실용주의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가치 아래 교수진은 버추얼 휴먼 인플루언서 'AVA'

를 개발하고, AVA가 2024 파리올림픽 대표팀 선수단복을 입은 패션 룩북을 선보이는 등 실험적 시도를 이어왔다. 학생들은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AI Design Awards'에서 수상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형 그래픽 전시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쌓고 있다.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기획,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지털 브랜딩, 미래 모빌리티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교과과정 소개

시디자인학과 의 교과과정은 인공지능 기반 생성적 디자인(Generative Design)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과 공학적 사고를 키우는 과목들로 구성됐다. 1학년은 디자인 언어와 기술적 초석을 함께 다지는 단계다. 드로잉,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기초 등 조형 수업과 통계학, 컴퓨터개론, 프로그래밍 기초 같은 공학 과목을 병행한다. 2·3학년 때는 인공지능 디자인 스튜디오, 서비스·제품 기획, 인터랙션 디자인, 데이터 시각화 등 실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4학년은 졸업 프로젝트와 산학 협력 과제를 통해 실전에 투입될 역량을 쌓고,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논문, 프로젝트 리포트, 산학 협력 결과물 등 원하는 방식으로 졸업 요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대학교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시각·제품·UI·UX 디자인 교육의 강점이 커리큘럼 전반에 반영됐다. 기업 협업 수업, 캡스톤 프로젝트, 국내외 공모전 등 참여의 장이 넓게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다. 학과의 대표 프로그램인 'AI DESIGN WEEK'는 경쟁력으로 꼽힌다. 학생들이 1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전시 주간으로, 시나리오부터 영상 제작까지 전 과정을 생성형 AI 도구로 완성한 영상 콘텐츠, 데이터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UI·UX 프로젝트, AI로 재해석한 영화 포스터와 브랜딩 디자인 등 실용성과 실험성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다. 학과 신설 이후 열린 첫 전시에서는 '40년의 미래와 화합'을 주제로 2064년 부산올림픽 브랜딩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증강현실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 등을 소개했다. 2025년 첫 졸업 전시 〈NULL〉은 '정의되지 않은 가능성'을 주제로 삼아,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과 역할을 스스로 상상하고 설계하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진로 방향

현재 시디자인학과 졸업생들은 AI 기반 서비스·플랫폼 기업은 물론, IT·모빌리티·콘텐츠 산업의 UX/UI 및 BX 디자이너, 메타버스·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크리에이터, 공공·문화 기관의 기획자 등으로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디자인사이언스, HCI, 미디어아트 등 관



련 분야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자의 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학과는 멘토링, 포트폴리오 컨설팅, 산학 네트워크 등 실질적인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기반으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시 전형

2026학년도 국민대학교 정시에서 시디자인학과는 가군 일반전형으로 총 12명을 모집한다.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60%와 실기 고사 40%를 반영해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실기 고사는 주어진 대상을 창의적으로 관찰·표현하는 조형 능력을 평가하며 시험 시간은 5시간, 실기 용지로는 켄트지 3절이 제공된다. 구술 면접 고사에서는 조형 교육에 필요한 사고력과 소통 능력을 확인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29일(월) 오전 10시부터 31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국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또는 유웨이(www.uwayapply.com)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실기 고사 일정은 2026년 1월3일(토) 오후 2시에 공지되며, 시디자인학과는 1월5일(월)~6일(화) 중 하루 진행될 예정이다. 면접 고사는 1월9일(금)에 진행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1월16일(금) 오후 5시로, 전형과 관련한 모든 안내는 국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술적 감수성과 영화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에게 열려 있다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

홈페이지 www.dankook.ac.kr
전화번호 031-8005-3137
교수진 이정하, 김선아, 박기용, 박지홍

커리큘럼

발상과전개, 영화기술기초, 영화미술기초, 영화학입문, 영화사, 영화 장르, 실험영화연구, 영화제작실습, 영화연출, 영화사운드, 영화촬영, 영화편집, 영상미학, 영화산업연구, 시나리오작법, 시나리오실습, 영화기획실습, 영화시각효과, 고전영화분석, 영화이론, 졸업영화프로젝트, 독립영화프로젝트

학부 소개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는 2007년 죽전캠퍼스로 이전한 해 영화·연극·뮤지컬전공을 아우르는 통합 학부로 학제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후 학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세부 전공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왔다. 1988년 신설된 영화전공은 오랜 전통에 힘입어 해마다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다. 2026년 수시전형 모집에도 선발 인원 7명 에 543명이 지원해 명성을 다시금 증명했다. 그 원동력은 현장 경험 이 풍부한 교수진과 체계적 커리큘럼이다. 영화이론서 〈몽타주〉를 저술한 이정하 교수는 영화사와 영상이론을, 〈시나리오 워크북〉〈단편 시나리오 쓰기〉〈액팅 원〉 등 여러 영화 서적을 번역한 박지홍 교수는 연출 및 제작 실기를, 영화산업과 정책 및 영화 기획 등은 〈지구를 지켜라!〉와 VR영화 〈동두천〉을 프로듀싱 및 제작한 김선아 교수가 담당 한다. 이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활동하는 외래 강사도 함께 학생을 지

도한다. 탄탄한 교수진이 이끄는 단국대학교 영화전공의 커리큘럼은 이론과 실기의 균형을 중시하는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학생이 학문적인 기본기를 배운 다음 제작 실습을 통해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영상문화의 기초로서 영화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발전하는 영상문화의 흐름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목표다. 1학년은 발상과 전개, 영화사와 영화학 입문, 영화기술기초, 영화미술기초 등 전공 기초 과목을 배운다. 2, 3학년은 네 차례의 제작 실습을 하는 동시에 편집·시나리오·촬영·사운드·시각효과·영상미학 등을 심화 학습한다. 4학년은 졸업 영화와 독립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산업체 현장실습과 국내 인턴십으로 실제 제작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운드학회, 촬영학회, 편집학회 등 교내의 장비를 사용하고 실습할 수 있는 전공 내부 학회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보조한다. 또 매해 신입생 환영 영화제, 영화전공 정기영화제 DUFF를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선보일 기회도 제공한다. 이처럼 학생 중심의 운영체계 덕에 단국대학교 영화전공을 졸업한 학생은 영화이론과 평론 등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작가, 감독, 영화 기획 및 제작, 촬영, 조명, 녹음, 믹싱 등 실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동문으로는 유지태 배우와 〈신의 한 수: 귀수편〉을 연출한 리건 감독 등이 있다.

입시 전형

2026학년도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의 정시 전형 원서 접수는 12월2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31일(수)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서류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5일(월)까지이며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만 유효하다(당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정시 가군에 속하는 영화전공은 이론과 연출, 스테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총 15명을 선발한다. 실기와 면접 중심으로 진행하는 수시와 다르게 정시는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평가한다. 성적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사탐 20%로 반영하며 한국사는 필수 응시해야 한다(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부여). 최초 합격자는 2026년 1월21일(수)에, 총원 인원은 2026년 2월6일(금)부터 2월12일(목) 오후 6시까지 발표한다.



출처: 오지영 기자

변화의 흐름 속 혁신을 가르친다

김선아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 교수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이 바라는 인재상이 있는가.

영화·영상 산업이 많은 변화를 겪는 시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영화·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나아가 시네마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영화 매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학생을 기다리는 중이다.

신입생에게 추천할 만한 강의가 있다면.

영화 매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이정하 교수의 이론 강의다. 앞으로 뉴미디어에 관한 정규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며 지금도 특강으로 뉴미디어를 가르치는 중이지만 시네마로서의 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창의성도 탄생할 수 있다.

정시전형의 경우 실기를 치르지 않고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영화 현장을 처음 접할 학생도 있을 텐데.

단국대학교는 2025년부터 전교생을 상대로 '디자인 마이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이다. 신입생은 1학기에 전공 교수의 지도하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정규 교과 외에도 선배와의 워크숍, 과내 학회 체험 등 여러 경험을 제공해 영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내년 신입생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가.

앞으로 미래가 밝은 분야인 만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와달라. 협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협업이 주는 기쁨 또한 클 것이다.



온라인 강의 혁신과 맞춤형 학습, 미래 인재 양성의 선두주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홈페이지 apply.iscu.ac.kr

전화번호 02-944-5000

교수진 [스포츠지도학과] 이항아, 우주연, 유철규, 정음문
[응용수학·통계학과] 천지영, 김일희, 이종원, 최재현,
노건태, 이성만, 최은선

커리큘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윤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심리학, 한국체육사, 운동역학, 스포츠생리학, 건강과 노인체육, 발레 피트니스, 스포츠와영상문화, 트레이닝 지도법, 하계스포츠, 동계 스포츠, 기능해부학, 재활필라테스, 그룹엑서사이스트레이닝, 스포츠영양학, 교정운동, 골프트레이닝, 건강체력평가, 기능성 트레이닝, 고강도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처방론, 운동부하검사, 스포츠지도자현장실습

응용수학·통계학과 공학수학기초, 기초수학, 기초수학연습, 수학으로보는세상, 응용수학·통계개론, 집합론, 0과1의세계(이산수학), 공학수학, 기초수학2, 기초수학2연습, 수확사, 정수론, 시프로그래밍기초, IT기초수학, 코딩첫걸음, 미적분학, 빅데이터기초수학, 선형대수학, 컴퓨팅사고, 파이썬데이터분석, 해석학, 확률과통계, 데이터과학실습, 미분방정식, 빅데이터분석및시모델링, 수리통계학, 암호의이해, 현대대수학, 코드없이따라하는머신러닝, 복소해석학, 빅데이터통계분석, 암호수학, 위상수학, 회귀분석, 미분기하학, 수치해석기초, 실험설계와데이터분석, 조사방법론, 다변량통계분석, 데이터분석과시각화, 블록체인과데이터분석, 통계프로그래밍, 데이터모델링과SQL(SQLD), 딥러닝, 시계열분석

학과 소개

한국 최초 사이버대학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25년 한해 동안 온라인 고등교육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TTS(Text-to-Speech) 기술을 강의 제작에 적용해 교육 혁신을 가속했다. 교수 8인의 외형과 목소리, 동작 등을 학습해 실제와 유사한 AI휴먼이 양질의 강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 중 가장 선진적인 AI 기술 역량을 확보한 만큼 에듀테크 솔루션도 선도적이다. 자체 개발한 AI챗봇과 AI학습튜터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며 생활 전반에 깊이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교육을 총괄하는 AI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국내 사이버대학 최다 신입생을 기록(대학알리미)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경쟁력은 여러 지표가 입증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최다 졸업생을 배출(대학알리미)하며 폭넓은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장학금 지급 총액 역시 4년 연속 1위를 기록(2022~2025년 대학알리미)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세 차례 공식 평가에서도 모두 최우수·A등급(2007, 2013, 2020)을 받았으며 두 번 연속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온라인 교육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 스포츠지도학과와 공과대학 응용수학·통계학과는 빠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신설됐다. 스포츠지도학과는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가 중요해진 흐름 속에서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이향아 스포츠지도학과 학과장), 응용수학·통계학과는 “데이터 해석 능력과 인공지능 원리에 대한 이해, 모델의 한계 검증 역량을 갖춘 인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천지영 응용수학·통계학과 학과장) 마련됐다.

입시 전형

두 학과의 2026학년도 상반기 모집전형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공통 절차를 따른다.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고교 성적, 생활기록부, 이전 대학 성적, 수능점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와 전형료(2만원) 납부는 2026년 1월15일(목)까지이며,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홈페이지(apply.iscu.ac.kr)에서 진행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지원 동기 등을 포함한 학업계획서(70%)와 학업준비도검사(30%)로, 두 항목 점수를 합산해 선발한다. 이중 학업준비도검사는 객관식 22문항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정서적 안정성, 인내력, 인터넷 활용 능력 등을 측정한다. 제한 시간은 30분으로 한번만 응시할 수 있으며, 완료 뒤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21일(수)로 예정돼 있으며 합격 여부는 입학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향아
서울사이버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학과장



천지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응용수학·통계학과 학과장

문제의 본질 읽어내는 주도성 키운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까.

이향아 지원동기, 관련 경험, 성장 과정, 진로 목표 등을 명확히 서술하는 것이 좋다. 스포츠를 선택한 이유, 팀워크·책임감·인내력 등 자신이 가진 역량, 입학 후 배우고 싶은 내용, 자격증 취득 계획, 현장 지도자로서의 비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우리 학과가 기대하는 인재는 소통과 배려의 태도를 갖춘 전문 지도자로 성장할 의지가 있는 학생이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실무 역량을 성실하게 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학 후에는 강의뿐 아니라 특강·비교과 등 풍성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동기부여와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니 부담을 덜고 지원해주길 바란다.

천지영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 꾸준함이다. 응용수학·통계학과를 선택한 이유, 향후 쌓고 싶은 역량, 성장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다. 우리 학과는 수학적 사고와 통계적 추론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고 자체가 자동화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도적 학습자’를 길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학과의 지향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비전과 연결해 서술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지원서가 될 것이다. 중고교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기초 강화 특강처럼 한때 수학과 거리를 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과 기술을 품은 융합형 교육의 현장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 영상제작전공, 연기전공

홈페이지 ipsi.jb.ac.kr
전화번호 02-3789-2020
교수진 [영상제작전공] 이재용, 전기주, 한동현, 강동균, 류진희, 박현규
 [연기전공] 김성택, 최종환, 임주현, 서철, 김기훈, 박경배, 최광호, 박응석, 박미란, 위명우, 임섿별, 김한나

커리큘럼

학부공동 융합예술과미디어, 공연과융합예술, 행복나눔크리에이터, 예술과기술의융합

영상제작전공 드론및특수촬영, 모션그래픽, 사진및촬영기초, 스토리텔링, 영상편집, 숏폼콘텐츠제작, 스튜디오제작, 영상음향, 영상콘텐츠제작, 촬영과조명, 커머셜영상제작, 컬러그레이딩, 방송영화편집, 게임엔진영상제작, 뮤직비디오제작, 사운드디자인, 스튜디오중계워크숍, 영화제작워크숍, 크리에이티브광고영상, 디지털미디어전략, 스튜디오제작, 졸업프로젝트, VFX스튜디오

연기전공 연기, 카메라 연기, 뮤지컬 연기, 오디션프로젝트, 연극사, 희곡읽기와분석, 전공 커리어세미나, 발성과 화술, 연기와 소리, 발상과 표현, 움직임, 연기와 움직임, 공연제작워크숍, 졸업프로젝트, 프로덕션워크숍, 연기에술일반상식, 뮤지컬명작실기, 연출과 기술제작

학부 소개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는 공연과 창작 문화의 중심지인 대학로에 자리하고 있다. 수많은 창작 스튜디오와 공연장이 밀집한 환경은 학생들이 예술 현장을 일상처럼 체험하고, 관찰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실습으로 이어지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졸업 후 진로 설계와 현장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융

합예술학부는 전공간 협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영상·공연예술·디자인·실용음악 등 다양한 예술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뉴미디어 플랫폼의 확장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창작 방식이 급변하는 시대, 학부는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실험적 창작 환경을 조성했다. 학생들은 새로운 제작 방식과 영상 언어를 탐색하며 장르 혼종성과 매체 확장을 기반으로 창작 역량을 넓혀간다. 이를 통해 복합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융합형 창작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영상제작전공은 변화하는 촬영 메커니즘에 대응해 시네마틱 영상 제작에서 언리얼엔진5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까지 이어지는 제작 체계를 교육과정에 통합했다. 영화·방송·광고·뮤직비디오뿐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 모션그래픽, VFX, 3D CG 등 첨단기술을 폭넓게 다루며 AI 단편 제작 워크숍,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실습, 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한다. 연기전공은 무대 연기를 기반으로 카메라 연기와 오디션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의 정기 공연과 졸업 공연, 산업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제 무대 경험을 쌓으며, 학생들은 매체별 연기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우로서의 개성과 정체성을 다져간다. 캠퍼스에는 4K 카메라, 드론 장비, 색보정·사운드 믹싱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등 기획부터 후반작업까지 창작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제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방송 시스템을 갖춘 카메라 스튜디오와 대극장을 통해 학내 교육과 산업 환경의 간극을 최소화한다. 이같은 기반 속에서 졸업생들은 배우·감독·PD·촬영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대표적으로 <어쩌다 발견한 하루> <선재 업고 튀어>의 이우재 배우, <스위트홈> <악귀>의 촬영감독 함성민 등이 있다.

입시 전형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는 2026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영상제작과 연기 분야에서 각각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공별로 반영 점수 및 비율은 상이하다. 영상제작전공의 경우 학생부 중심 전형(학생부 100%), 연기전공의 경우 실기 고사 성적 100%를 반영한다. 실기 고사는 대학로 캠퍼스에서 2026년 1월23일(금)~24일(토)에 진행되며, 자유연기를 비롯하여 수험생이 원하는 특기, 인터뷰, 카메라 테스트 등으로 구성된다. 원서 접수는 12월29일(월)부터 2026년 1월14일(수)까지 가능하며, 유웨이·진학 어플라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합격자는 2026년 1월30일(금)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ipsi.jb.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동현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
영상제작전공 학과장



최종환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
연기전공 교수

현장 중심 교육과 첨단기술로 미래 예술인을 양성한다

최신 기술과 산업 변화에 맞춰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다.

한동현 시네마틱 영상 제작에서 언리얼엔진5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까지 이어지는 실습형 파이프라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이를 위해 모션그래픽, VFX 및 언리얼엔진을 활용한 3D CG 제작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기획, 촬영, 후반작업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체험하며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AI 활용 단편 제작 워크숍, 대형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프로젝트, 실시간 VFX 제작 경험 등을 통해 최신 기술을 직접 다루고 창작적 상상력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넓힐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경험은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산업과 공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만의 창작 언어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화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부가 바라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최종환 '카메라 앞에서는 스타, 무대 위에서는 예술가'가 우리가 키우고 싶은 인재상이다. 자신감이 넘치고 도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으며, 무엇보다 연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울릴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물론, 끊임없는 연습과 협업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최고의 배우는 최고로 놀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유연함과 즐거움도 잊지 말아야 한다.